

# 시민 소득·행복지수 향상, 탄탄한 미래성장동력 토대 구축

“내년을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아 시민의 실제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정읍의 탄탄하고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 가진 이날 연설에서 유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도 밝혔다.

### ▲내년도 예산 편성 건전재정 큰 틀 유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우선 고려

유 시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과 지역개발 계속사업 등 필수 재원 수요 증가로 시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내년도 정읍시 재정 여건을 밝혔다. 이어 “재정 운영 시 건전재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정책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환경개선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성과 창출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8460억원이다. 일반회계가 7889억원, 특별회계가 571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7413억원에서 1047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889억원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6.3% 늘어난 670억원이고,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는 3694억원, 조정 교부금은 1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885억원이다. 관련해 유 시장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로 반드시 임기 내 1조원 예산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 ▲2019년 시정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유 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관련 “시민 실제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탄탄한 미래 성장 동력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 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내년을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자연과 역사, 문화와 농수축산물 등 정읍이 가진 모든 유·무형 자원에 대한 마케팅으로 시민의 실제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각오다. 지속적인 첨단과학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양질의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도 주력한다. 일환으로 2단계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지역현안 문제 해결형 R&D확대, 동물약품업 산업화 기반구축, 입주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중심시가지형? 공기기업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쌍화차와



### 내년 예산 규모 8460억 '마케팅 원년의 해'로 첨단과학도시 기반 구축·토탈관광 육성 가속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위상 강화·농생명과 복지도

태평로, 새암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공공 부문 신규사업과 청년채용형 일자리 지속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세계적 토탈관광 육성 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다. 2019년, 2020년을 정읍 방문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원 연계를 통해 정읍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다.

정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과 내장산문화관광 개발, 국내 최대 실내 놀이시설인

내장호 복합생태체험 모험공원 조성, 문화재 발굴 체험장 조성, 대표음식 개발 등이 대표 사업이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역사 재평가와 온전한 계승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유시장은 “11월 9일 드디어 정읍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지정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는 12만 정읍시민과 시의회, 공직자, 출향인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설득과 노력, 간절한 열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은 결코 정읍만의 유산으로 역사로 가두어서는 안 되고 전국 각지에서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이며 시대의 분노였다”며 “정읍은 그중에서 만행, 장형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제 장형, 만형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소 소신도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5월 11일로 선정됨에 따라 기념일 개최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고부봉 기가기념행사 선양사업 지속 추진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비롯 수채전, 참국, 풍류문화 등 차별화된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과 대형 스포츠타운과 도시생태 숲 조성 등 ‘감동관광도시 정읍’ 기반 구축사업과 활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예코축산 축산 실현과 스마트한 농·생명도시 토대 구축 사업도 강화해 추진한다.

예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을 비롯 냄새저감 미생물 제제 활용 방안 모색, 축산냄새 감지 및 종합관리시스템 개발과 농촌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프로 농업인 육성,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 스마트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떠오른 귀농귀촌시책에도 힘을 쏟는다. 유 시장은 “귀농·귀촌학교 운영과 체류형 공간 조성, 영농 정착 지원과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전개 등 정읍형 귀농귀촌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복지와 시민 안전 확보 사업도 강화한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그룹홈 활성화와 독거노인 응급 비상 알리미 구축,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등 생애 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시내버스요금 1,000원 단일화와 농촌복지택시 확대,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 안내 등도 대표사업이다.



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화장실 긴급 호출벨 완전 설치와 범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CCTV 설치 등 생활밀착형 SOC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자연재해 위험 사전 대응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식수원 공급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을 비롯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보급하

는 등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는다. 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82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소통하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읍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과 방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날개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강력한 엔진으로, 의회는 날개가 되어 정읍의 희망 비행을 나서자”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미래 희망 정읍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 내내 풍성한 볼거리가 넘치는 도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과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첨단과학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정읍!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읍이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 **첨단산업과 토탈관광**, 그리고 **예코축산**이 있습니다.

100년 공간을 책임질 첨단과학기술 선진도시, 정읍! 감동 넘치는 토탈문화관광도시, 정읍!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예코축산도시, 정읍!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희망 정읍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